



보도자료

2003.4.8(火) 09:00시 이후 보도

대통령
홍보비서실
춘추관 TEL 02-770-2564

담당부서: 홍보연설비서실

비서관: 윤태영 비서관

☎: 770-2552

노 대통령, 제1회 동북아 경제포럼에 축하메시지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회 동북아 경제포럼에 메시지를 보내 축하했다.

대통령 메시지

제1회 '동북아경제포럼'의 개막을 축하합니다. 해외에서 오신 참가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동북아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세계일류의 정보화기반과 물류기반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한반도에 평화가 뿌리내려야 합니다.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는 한 동북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동북아지역이 냉전에 종지부를 찍고, 유럽연합과 같은 지역통합과 공존의 질서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한국은 또한 중국,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과 협력하고 경쟁하면서 동북아의 번영을 함께 일구어나갈 것입니다.

국내외 기업들이 자유롭게 어우러져 공정하게 경쟁하는 나라,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과 연구 인력이 모여드는 금융과 R&D 센터,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물류 거점, 이것이 바로 21세기 동북아 시대에 한국이 이루고자 하는 청사진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포럼은 매우 뜻깊습니다. 동북아 시대에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유익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진지한 토론이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여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토론 결과를 경청하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4월 8일